



# 서중신문

2014-4호

- 발 행 인 : 교장 교수영
- 지도교사 : 윤인아
- 발 행 처 : 변산서중학교
- 발 행 일 : 2015. 2. 6



579-854 전북 부안군 변산면 지사로 139 / 교장실 063) 583-6679 / 교무실 063) 582-8122 / 행정실 063) 582-8039

## 타이틀



변산에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립니다.  
바다를 거칠 것 없이 지나쳐온 대륙의 북서풍이 육지에 도달하며 “어이쿠 변산이다 쉬었다가자”하는 생각에 한해 겨울에도 몇 번씩 학교에서 눈을 치웁니다.

올해는 방학 앞두고 발목을 넘는 눈이 네 번씩이나 내렸습니다.

본관 앞 현관에서 신관을 거쳐 교문 쪽으로 등굣길 눈을 양옆으로 밀어냅니다. 눈가래 하나씩 잡고 밀어내고, 쓸다보면 등줄기에 땀이 나고 입에 서는 하얀 입김이 나옵니다. 한 시간 정도 지나면 거진 눈이 치워지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아 질 때면 맑은 아침 해가 쌍선봉 마루에서 눈부시게

떠올라 학교를 비춥니다.

방학이 몇일 남아있고 고등학교 입시가 남아 있는 12월 인데 발등을 넘어가는 눈의 하얀색은 여러 가지로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올해는 세월호에 묻혀 한 해가 지나가는 가 봅니다. 사회의 어리숙한 생각과 주변의 미숙한 환경들이 왜 개혁의 대상이 되는지를 잘 나타내준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우리학교에서는 ‘바른 인성과 큰 꿈을 키우는 즐거운 학교’라는 경영 방침 아래 열심히 공부한 학과 수업과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른 인성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할 중요한 덕목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에서 속력이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바른 길을 지향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절하게 생활하며 스스로를 단단하게 하는 바른 생각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시절의 학력은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하여 채워야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안내하는 교수학습 과정은 학력을 채우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기기에 학교에서는 꾸준히 노력하여 소기의 목적을 도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배우고 체험한 한 학년이 지나갑니다. 일 년이 지나감이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인생에서 의미 있는 중학교 시간이 되었으리라 기대하면서 새해 새 학년에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학교군사업 3개교 워크샵

학교군 3개학교(격포초, 변산초, 변산서중) 전교사는 지난 12월 10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변산농협연수원에서 전라북도 교육청 혁신과 이영환 장학사님을 모시고 ‘바른인성 키우기 학교군 공동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한 학교폭력 제로화’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가졌다.

이번 워크샵에서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교 문화 혁신 연수,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육성을 위한 평화교육 연수, 참여와 소통을 위한 학교교육 위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교원 혁신역량을 신장하고 학생의 성장을 돕는 교사 마인드 함양 및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자리가 되었다”고 전했다.



## 후배사랑 장학금 전달

우리학교 졸업생이시며 격포에 사시는 정인석님께서 변산서중 후배를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였다.

평소 학교생활에 성실한 2학년 2반 범대희 학생이 선정되어 지난 1월 16일 교수영 교장선생님께서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정인석님은 “장학금은 모교와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며 “모교의 발전과 훌륭한 후배 양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Contents

### 2 + 학교소식

- 국민독서경진대회 시상
- 물드림캠프
- 부안군 육상경기대회
- 학부모지원사업 밀반찬지원
- 구강교육
- 심폐소생술 실시

### 4 + 진로교육

- 겨울방학 진로캠프
- 직장인 초청강의 및 체험
- 진로체험 부안청자박물관 도예체험
- 진로체험 동아리 두드림
- 내 꿈을 찾자

### 6 + 우리들의 활동

- 신나는 도시문화체험
- 스포츠경기관람
- 부안군 학생 4-H 과제발표회
- 겨울방학 영어캠프
- 우수학교 4-H 회원 문화탐방
- 변산의 요모조모!!
- 자연으로 떠나는 힐링 ‘템플라이프’
- 저자와의 만남

### 8 + 우리들의 숨씨







## 국민독서경진대회 시상 우수한 성적 거둬

지난 12월 22일 새마을문고함양군지부에서 주관한 대통령기 제34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독후감 단체부문 최우수상에 1학년 손자영, 오소현 2학년 최어진, 범대희 3학년 김수정, 이유진, 편지글부문 최우수상에 1학년 김주희 우수상에 3학년 추현아 학생이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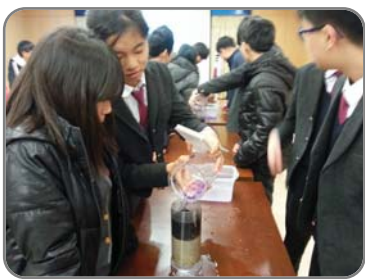
이번 대회는 범국민적인 독서문화축제를 통해 문화국민으로서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실시됐다.

황일주 선생님은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해 얻은 성과인 만큼 수상 학생들은 물론 참가학생 모두에게 큰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 K-water 물드림캠프

### ‘생명사랑은 물에서부터’



11월 20일 K-water 전북지역본부 부안정수장이 마련한 '물드림 캠프'에 2학년 1반 학생들이 참가, 물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프로그램 주요내용은 ‘물’의 중요성에 대한 영상교육과 정수장

시설견학, 간이정수기, 친환경 수차 만들기인 물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하였다.

체험교실은 실험탐구 활동의 일환으로 친환경 수차 만들기 활동과 우리가 먹는 수도물이 우리에게 오는 과정을 배우고, 보와 어도 등 생태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간이 정수기를 만들어 보면서 지시약을 이용하여 물의 오염 정도를 느낄 수 있는 체험학습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물의 소중함을 알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체험에 참가한 설유빈 학생은 “물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물을 남길 수 있도록 물을 아끼고 환경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정기영 교사는 “이번 물 드림 캠프를 통해 주변 문화를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학생들이 물을 아끼고 소중히 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을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부안군 육상경기대회

### “우리학교 빛났다.”

부안군 육상경기대회가 지난 11월 7일 부안군 스포츠파크에서 열렸다.

우리학교에서 선발된 100m 3학년 박건아 1학년 오은미, 200m 2학년 이병환, 3학년 조유정, 800m 3학년 김대섭, 2학년 김우나, 1500m 3학년 이상훈 김민서, 포환던지기에 2학년 송재홍 3학년 신유미가 출전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800m 2학년 김우나 학생은 1위를 하였으며, 100m 오은미와 1500m 김민서 학생은 2위를 차지했다.

포환던지기에 출전한 송재홍 학생은 9m87cm를 던져 2위를 하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

대회에 출전한 2학년 이병환 학생은 “200m에 출전했는데 4위에 그쳐 너무 아쉽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 학부모지원사업 밀반찬지원

### 나눔의 기쁨 “사랑까지 담아요.”

학부모회는 지난 12월 12일 학교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6가구에 밀반찬을 전달하였다.

이날 학부모회는 정성스럽게 만들고 포장한 밀반찬에 사랑까지 가득 담아 봉사활동을 펼치며 더불어 함께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서 훈훈한 사례가 되고 있다.

반찬을 받으신 한 학부모님은 “쌀쌀하고 추운데, 맛있는 반찬을 제공해 줘 정말 감사하다” 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학부모회장 김정자님은 “추운 날씨였지만 나눔의 기쁨과 보람을 나눈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 구강교육 ‘학생들 치아건강 업그레이드’



청소년들의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을 길러주고자 11월 19일 부안보건소에서 본교를 방문해전교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구강관리 실천습관 기틀을 마련해 주고 구강건강관리방법, 불소를 활용한 치아우식증 예방법 및 올바른 칫솔질 지도 등의 다양한 체험의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교육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학교불소용액양치, 불소도포사업 등의 사업을 펼쳐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심폐소생술 실시  
‘골든타임.... 5분의 기적!!’



11월12일 전교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응급상황에 대비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부안소방서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청소년들에게 일깨워주고, 심폐소생술 방법을 직접 체험하는 순으로 실시됐다.

특히, 심폐소생술은 심정지상태인 환자 심장에 강제압박을 통해 온몸에 혈액을 보내 생명을 유지시키는 응급처치법으로 환자 발견 시 최초 5분 이내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뇌손상에 따른 장애를 막을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

교육에 참여한 한 황일주 교사는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상황별 적절한 대응요령과 심정지 환자를 위한 기본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교육을 실습 위주로 진행해 이해하기 쉬웠다”고 말했다.

부안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류용훈 소방사는 “심정지가 발생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손상이 오고 10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비가역적 손상이 온다”고 말했다. 또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땐 119에 신고한 후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겨울방학 진로캠프 ‘체험을 통한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운영

지난 1월 20일 겨울방학 중 진로캠프 ‘체험을 통한 자기주도적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이라는 주제로 1,2학년 신청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캠프는 찾아가는 이공계 직업체험 포인트 아카데미 김지영 강사님과 빗고을 한옥학교 김광현 강사님 두 분을 모시고 건설사 체험인 한옥 짓기 체험과 해부학자 체험인 소 눈을 해부해 보며,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 직업의식 형성과 직접 행동하고 느껴봄으로서 진로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건축사가 꿈인데 이번 한옥 짓기를 체험하면서 꿈에 한 발짝 다가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수영 교장은 “진로고민과 학업문제로 나날이 지쳐가는 학생들에게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꿈과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 흥미를 느끼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직업인 초청강의 및 체험 「미술치료상담사」의 세계

## “나는 행복한가?”

지난 12월 13일(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상담사를 본교에 초청하여 실제 직업인을 만나고 실제 직업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와 자신의 이해와 적성을 확인하는 미술 심리치료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심리치료 전문 강사는 미술치료상담사의 역할과 미술치료상담사가 되기 위한 관련학과 정보와 다양한 상담사례를 소개를 통한 직업의 관심도를 높였다.

이 후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으로 하여 자기 자신의 내면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시간을 갖고, 활동을 통해 감정이나 내면세계를 표현하면서 기분과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습득했다.

전문 강사는 “미술심리치료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느낌이나 생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서 내면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자아성장을 촉진시키는 치료법이다”며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긴장과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떨어져 예술적인 미술요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손자영 학생은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손자영 학생은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진로체험 부안청자박물관 도예체험활동

## ‘청자의 숨결을 느껴요’

12월 12일(금)에 2학년 광태홍 외 48명의 학생들이 부안청자박물관으로 도예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이번 체험학습은 진로체험으로 미술과 수업을 연계하여 향토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학생들의 소질계발과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 학생들은 직접 흙을 만져보고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그릇을 만들어봄으로서 자연 친화력을 기르고 함께 더불어 꿈과 재능을 키우기 위해 실시됐다. 습은 전문강사로부터 도자기의 종류와 흙 다루는 방법, 도자기 제작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직접 흙으로 말아올려쌓기 방법으로 모양과 형태를 성형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무늬를 담았다.

이번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흙을 마음껏 주무르면서 자신만의 개성과 창의성을 맘껏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 진로체험 동아리 두드림 ‘근대로의 시간여행’

지난 11월 1일 희망자 25명을 대상으로 교사 박유리, 이수희 선생님의 지도로 군산 근대사 현장 탐방에 나섰다. 이번 진로체험의 목적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군산 근대사 현장 탐방은 군산역과 임피역에서 역장체험을 시작으로 이영춘 가옥, 발산리 유적지, 근대역사 박물관에서 역사체험은 물론 큐레이터 직업체험과 채만식문학관을 둘러보았다.

체험에 참여한 임한별 학생은 “우리나라의 근대사의 아픈 기억을 직접 보고 느껴보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떠올랐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텔레비전에서만 접했던 것들을 체험해보니 꼭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 “내 꿈을 찾자! 내 꿈을 잡자!”

12월 3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홀랜드 진로발달검사 및 진로탐색검사를 실시했다.

개인의 성격특성을 기초로 하여 그에 맞는 진로탐색과 직업유형을 알아보고, 그 직업유형에 속하는 진로를 탐색해 보기위한 간편한 방법으로 자신이 선호하고 직업유형에 속하는 직업들을 탐색함으로써 학습동기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이번 홀랜드 진로발달검사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성향과 적성을 파악하고 학생들 자신의 적성에 적합한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진로담당 박유리 교사는 “앞으로 학생들의 진로와 꿈을 갖게 하기 위해 바람직한 진로를 설정하고 꿈을 이루어 나가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신나는 도시문화체험’

2014년 12월 23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주 한옥마을과 송천 CGV에서 영화 국제시장 관람을 통해 도시문화를 느껴보고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도시체험활동은 학교군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도시문화 이해 제고 및 문화적 지체 현상 완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도시 속의 옛 것이 주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한옥마을의 정취와 문화를 체험해보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국제시장」 관람을 통하여 전쟁과 노동으로 이어지는 개인의 내력과 고난의 시대를 겪었던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수영 교장은 "이번 도시체험활동은 농산촌지역 거주로 도시체험 학습의 기회가 부족했던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통해 도·농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의 되었다"고 말했다.

## 스포츠 경기관람 "KCC~!!!"



지난 11월 15일(토) 농구 경기 관람을 희망하는 학생 25명과 학교 스포츠 활동의 일환으로 오후 14시부터 2시간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전주 KCC와 동양오리온스의 농구 경기 관람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스포츠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계획된 이번 행사는 농구 경기를 직접 관람하면서 생동감 넘치는 현장감을 체험하고, 주말 오후를 의미 있고 알차게 보내게 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었다.

이날 경기를 관람한 학생은 평소 농구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추억도 쌓아 보자고 나왔는데, 직접 현장에서 농구 경기를 보니 생각보다 재미있고 박진감 넘쳤고, 흥미진진한 경기를 보면서 현장에서 직접 관람하는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수영 교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스포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생활 스포츠의 하나로 성숙한 관람문화를 체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획할 것"이라고 했다.



## 우수학교 4-H 회원 문화탐방

### “우리문화의 소중함 간직해요.”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은 받아 지난 12월 15일~16일(1박 2일)간 학교 4-H 회원을 대상으로 문화탐방을 실시하였다.

부안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체험 활동은

1학년 6명, 2학년 12명, 3학년 12명 총 3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문화탐방은 첫날 목포해양박물관을 방문하여 해양관련유물을 관람하고, 남농 박물관, 우항리 공룡박물관, 대흥사를 끝으로 하루 일정을 마치고 다음날 보성 녹차 밭과 선암사에서 사찰문화 탐방의 시간을 가졌다.

고수영 교장은 “이번 문화탐방을 통해 우리 자연·문화유산의 소중함과 공동체의식과 리더십을 키울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단체생활을 통해 회원 간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상호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겨울방학 영어캠프

## ‘영어는 맛있다.’

1월 26일부터 27일 이틀간 본교 영어전용교실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실시하였다.

나의 버킷리스트 만들기과 대왕 김밥 만들기 체험 위주의 생활영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캠프 기간 내에는 영어만으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해 영어 사용 기회를 최대한 확보하였다.

영어나 박유리 교사는 “언어는 생활에서 습득되어지는 습관과 같은 것이어서 공부를 한다기보다 스스로 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캠프가 영어에 관심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쉽게 사용하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뻔하면 한다.”고 말했다.

고수영 교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그 동안 영어를 어렵게만 생각하는 학생들이 영어가 쉽고 재미있는 것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2014년 부안군 학생4-H 과제발표회



학생4-H회원 활동 기간에 숙달한 과제학습의 경진을 통해 회원 간의 협력과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원 활성화 및 참여 증진을 위한 2014 부안군 학생 4-H 과제발표회를 11월 7일부터 8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학생 4-H 회원 53명과 지도교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재국화, 압화, 목공예, 포크아트 등 다양한 과제활동 전시물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부안군 4-H본부는 학교4-H 12개교 우수학생들에게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으며, 미라클 스피치의 이현주 강사를 초청하여 ‘자아발견 및 진로탐색 마인드 맵’을 주제로 한 특강과 농심함양을 위한 ‘다육식물 모듬심기’ 과제실습 활동을 펼쳤다.

과제발표회에 참여한 범대희 학생은 “국화를 키우는 지난 일 년이 힘들긴 했지만 이렇게 전시를 하고보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고 전했다.





교장선생님과 함께하는

변산의 **요모조모!!**

## 변산의 지명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부안현조에 산천 부분에 변산은 보안현의 서쪽 20리에 있고 능가산이나 영주산으로 불리우나 卞山으로 불리우며 卞韓의 卞이 邊으로 변화되어 사용된 이유는 모르겠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의 이규보는 변산을 산은 백 여리에 층층의 높은 바위와 깊은 계곡으로 좋은 목재가 많아 고려 이래로 궁궐의 목재로 사용되어 변산 天府라 불렀다라고 되어있다.

생각해 보면 변산의 邊의 의미는 중앙이 아닌 가장자리를 뜻하고,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산줄기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는데 변산은 그 줄기에서 비껴서 있고 호남평야를 지나 서해바닷가에 자리한 이유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생각된다.

변산에는 변산이 없다. 의상봉(509m) 주봉으로 하여 월명암, 관음봉, 옥녀봉, 등 400m 급 산봉우리 모두를 변산이라고 부른다.

변산면의 유래를 행정구역으로 살펴보면 1914년에 좌산내면(진서, 석포, 운호)과 우산내면(도청, 격포, 마포, 운산, 지서, 대항, 중계, 하도(하섬))을 합쳐서 산내면으로 만들어 불렀다.

그 후 구역 조정과정에서 하도는 격포리에 병합되었으며 1947년에는 산내면 진서 출장소가 설치되어 3개리(진서, 석포, 운호)를 관장하여 오다가 1983년에 진서면으로 승격 분리되었다. 1987년에 산내면은 변산면으로 개칭되었고 현재 7개리 39마을로 편성되어 있다.

변산의 지명에는 생활 주변의 지형 산과 들 그리고 바다와 어업 풍수지리와 관련이 있는 지명이 많다, 지명에 따르는 여러 이야기가 있으며 지역별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항리 : 부안에서 격포진으로 가는 큰 길목을 한 목 또는 대항이라 함, 또는 마을의 산세가 학의 목에 자리 잡았다고 해서 큰목 즉 대항으로 불린다.

합구 : 풍수로 보아 아홉마리 조개가 진주와 어울리는 형국의 명당자리를 마을 이름으로 삼음

방포 : 해수욕장 옆 동네로 개(갯벌)를 막아서 땅을 넓힌 마을 막은 개가 한자로 막을 防과 포구 浦로 사용됨

자미 : 풍수에 의하면 영천구미 혈에 자리한 마을로 생활하여 보니 살림이 점점 늘어나 점점 자미가 난다고 하여 구미를 자미로 바꾸어 불렀음

지서리 : 지지포의 서쪽에 있는 평지말

지지포 : 고려 명신 김구 선생님의 가르침인 알 知 머무를止를 사용한 포구

지남, 지동 : 지지포의 남쪽, 동쪽 마을

송포 : 변산해수욕장 남쪽 포구 소나무가 무성하여 포구이름이 松浦로 불림

운산리 : 쌍선봉의 바로 밑이라서 구름이 자주 끼어 있어 구루미 또는 구름 운을 빌려 운산리로 씀 또는 두운산의 이름 바뀌어 운산이 되었다고도 함.

고사포 : 옥녀봉에서 내려와 바닷가로 이러진 산줄기가 옥녀탄금혈이라서 북鼓에 실絲를 빌려 고사포라 함

성천 : 옥녀봉 계곡을 타고 깨끗한 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는 곳으로 고사포해수욕장의 모래언덕 남쪽에 자리 잡고 있음

사망 : 풍수의 산망어웅 형국으로 그물을 펼쳐놓은 것과 흡사하다

## 자연으로 떠나는 힐링 ‘템플라이프’



지난 12월 20일 관내 전통사찰 내소사로 윤수연외 14명과 함께 ‘자연으로 떠나는 템플라이프 힐링 교육’을 다녀왔다.

이 교육은 몸과 마음에 휴식을 안겨주는 산사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사찰에서 사찰의 일상과 수행자의 삶을 경험

하는 사찰문화체험과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자연과 내가 하나 돼 세속의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참 ‘나’를 찾는 시간이기도하다.

오전 10시 내소사 도착과 함께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스님의 안내를 받아 사찰에 담긴 이야기와 불교정신에 관한 설명을 듣고, 사찰고유 음식과 함께하는 ‘점심 공양’ 후 대웅전에 들러 그려진 벽화를 감상하고 스님과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템플라이프에 참여한 윤수연 학생은 “나를 찾고 사찰문화를 이해하기엔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용한 산속에서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니 마음도 평온해짐을 느꼈다. 기회가 되면 절에서 하룻밤 잘 수 있는 템플스테이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 저자와의 만남

## ‘도요새 요리’의 시인 최광임

지난 1월 2일 겨울방학을 맞아 ‘저자와의 만남’을 개최하였다.

‘감성의 바다에서 서항에 취하다.’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우리학교 졸업생인 ‘도요새 요리’를 저술한 최광임 시인을 초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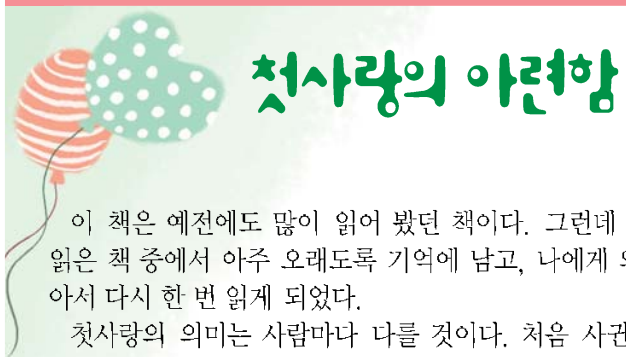
최광임 시인은 “TV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 영상 매체가 범람하고 빠르고 즉각적인 것에 익숙해 있는 요즘, 책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동떨어진 존재가 돼가고 있다”며 강연을 통해 “사유하고 이성적 힘을 기르기 위해서 독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학창시절의 이야기와 시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학생들의 독서습관, 독서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책과 함께 작가와 호흡하며 학생들이 저서를 읽고 궁금했던 작품의 창작 배경과 숨겨진 일화 에피소드 등을 작가로부터 직접 듣는 이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를 담당한 교사 정혁은 “학생들의 독서활동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학생들이 보다 많은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기 제34회 독서경진대회 독후감부문 최우수상 작품



## 첫사랑의 아련함

● 3학년 이유진

이 책은 예전에도 많이 읽어 봤던 책이다. 그런데 이 책이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아주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나에게 와 닿는 내용이 많아서 다시 한 번 읽게 되었다.

첫사랑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처음 사귀어 사귀어 일 수도 있고, 나를 좋아해 준 사람일 수도 있고, 가슴이 두근거린 사람일 수도 있다. 나의 첫사랑 의미는 오랫동안 좋아하고 진심으로 좋아한 사람이 첫사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6학년인 동재는 부모님의 이혼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같은 반 연아를 좋아한다. 보는 내내 동재가 안쓰러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볼 때마다 더욱 더 집중하면서 읽었다.

동재의 첫 사랑이자 짝사랑은 연아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동재의 마음이 공감되기도 하고 마치 예전의 나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도 동재처럼 짝사랑을 해 본 경험이 있다. 1년 전 나는 학교 선배를 좋아한 적이 있다. 처음에 좋아하게 되었던 계기는 없고 그냥 그 선배 자체가 너무 좋아서 관심이 갔다. 복도에 지나쳐 그 잠깐의 모습도 좋았고, 급식소에서 밥 먹을 때도 마주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 실제로 말을 해 본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말을 걸어 보았던 날은 집에서 설레었고 참으로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곤 했었다. 그 후 시간이 꽤 흐른 지금도 가끔씩 생각이 나곤 한다. 그 오후엔 좋아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고, 예전에 좋아했던 걸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지금은 졸업해서 서로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고 있다.

동재는 연아에게 고백을 해 사귀게 되지만 연아네 성당에서 보기 좋게 차이게 된다. 나는 동재가 고백했다는 그 용기만으로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 누구를 좋아한다는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일은 매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좋아한다는 마음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아주 조금 보여준 것 같아서 솔직히 지금은 아쉽기도 하다. 그때 용기를 내서 고백했다면 속이 후련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동재가 연아에게 차였을 때 마음은 매우 슬프고 우울했을 것 같다.

동재가 자신의 첫사랑인 연아를 아름답게 보내 준 모습을 보고 지금 현재 나와 비슷한 상황이어서 동재에 행동 하나 하나가 모두 공감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었다.

“앞으로 살면서 넌 많은 사랑을 하게 될 거야. 그 때마다 온갖 감정들을 경험하겠지. 아빠는 우리 아들이, 그 사랑들을 만날 때마다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널 성장시켜 준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끝나든 해피 엔딩이라는 걸 잊지 마라.”

라는 구절이다.

첫사랑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마냥 섰던 예전의 나를 위로해주기에 충분했고,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구절이기에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다. 나도 이 구절처럼 같은 생각을 가지며 사랑할 수 있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아직 내 첫사랑은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늘로 완전히 끝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첫사랑의 아련함을 언제까지나 느끼고 싶으니까!

## ‘템플스테이’를 다녀와서

● 2-1 최어진



지난 21일 토요일 우리학교에서 역사 선생님이신 이수희 선생님과 ‘템플스테이’를 다녀왔다. 개인적으로 나는 천주교 신자이기도 하지만 체험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라는 생각에서 이번 체험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날 우리는 모두 10시까지 격포 터미널에 모여 다 같이 버스를 타고 내소사에 갔다. 부랴부랴 절에 도착 하자마자 시간에 맞추어 올라가기 위해 빠르게 가는데 문득 플랜카드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말이 적혀있었다. 모순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종교인으로서 축하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니 이해가 갔다. 내소사에 다다라 공양을 체험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기다리면서 절을 잠깐 구경하니 주변 경치와 어울려 지은 절의 모습이 멋지게 들어왔다. 나중에 스님도 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점심 공양을 하려고 들어가니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관광객 분들도 계셨고 불교 신자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다.

본격적으로 공양을 하기에 앞서 몇 가지 절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공양시간에 먹는 동안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스님께서 일러 주셨지만 그다지 지켜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메뉴는 짜장밥과 여러 반찬이었는데 애들은 맛없다고 불평 불만 했지만 나는 나름 맛있게 먹었다. 스님께서 조미료를 하나도 넣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다. 공양을 다 마치고 접시와 식기도구는 자기 스스로 치워야 한다는 방침에 의해 설거지도 자기 스스로 했다. 그 후에 우리는 식사했던 곳에서 나와 대웅보전(대웅전)에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 이 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교각이 하나 없는 데 그 이유에 대해서 등 여러 유익한 정보를 많이 들었다. 중간에 잠깐 불상그림에 얹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벽 뒤에 조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크게 부처님이 그려져 계시고 부처님 눈을 마주보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셨다. 예전에 처음 만들 때부터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스님의 말씀이 다 끝나고 모두 벽 뒤의 틈으로 가서 소원을 비는 시간을 잠깐 가졌다.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는 그냥 보기만 하고 지나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제대로 소원을 빌었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모르겠다. 그 다음 우리는 대웅보전(대웅전)에서 나와 대웅보전 둘레에 그려진 벽화에 대해서 스님의 설명을 들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염라대왕 말고도 사실 여러 다른 왕들이 있는데 각각 하나씩 죄를 다룬다고 한다. 모든 죄는 입으로 짓는다고 혀를 길게 뽑아 그 위에 농사를 짓는 그림부터 톱으로 썰고 칼로 베는 지옥 등 여러 가지 그림의 설명을 들었다. 사실 이 부분은 만화 와 같은 인터넷매체에서 설명을 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더 재미있게 들은 것 같다. 이 모든 일들을 마치고 우리는 숙소로 돌아가 스님과 차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녹차를 마시면서 스님들에게 질문하는 시간이었는데 다른 관광객 분들과 함께 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주로 탄 것을 많이 했고 다른 곳에서 오신 어른 분들이 주로 질문을 했다. 이야기를 듣기로는 어느 회사에서 단체로 오셨다고 얼핏 들은 것 같다. 서로의 찻잔에 차를 따라 주면서 몸을 녹이고 여러 대화가 오고갔지만 솔직히 별로 긴 시간은 아니었다. 우리는 버스시간 때문에 중간에 나왔으니까 말이다. 거기서 이야기를 들은 것 중 하나가 스님은 원래 고기를 못 먹지만 그건 전통 종파 3개만 그리고 나머지는 먹기도 한다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종파가 100개정도 된다고도 이야기 해주셨다. 인터넷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 원래 그러서는 안 된다는 스님 말씀이 웬지 기억에 남고 일본에서는 스님이 밤마다 승려복을 벗고 양복을 입고 외출을 하신다는 말을 듣고 나도 충격이었지만 스님께서도 처음 봤을 때는 충격이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게 일본의 문화라고 존중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스님 분들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특하면 종교로 말이 많은데 하물며 같은 종교 안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도 이해를 해주신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버스 시간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대신 스님에게 내년에는 꼭 하루 묵을 수 있는 체험을 하겠다고 말하고 나서야 나올 수 있었다. 내 입장에서 점점 재미있어지는 찻나에 결국 우리는 나와서 버스를 타고 다시 격포로 돌아왔다. 다들 아쉬운 마음에 1학년 오은미네 가게에서 선생님이 칼국수를 사주셨고 맛있게 먹은 후 집으로 돌아갔다. 내년에도 이렇게 템플스테이(하룻밤 묵으면서 체험)를 할 수 있다면 좋겠다.

